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7(355~368)

북중무역에서 정체성 저글링: 중국 단둥 소재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정수열* · 김민호** · 지상현*** · 이승철****

Identity Juggling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 Case Study of Korean Chinese(*Chosonjok*) in Dandong, China

Su-Yeul Chung* · Minho Kim** · Sang-Hyun Chi*** · Sung-Cheol Lee****

요약 :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단둥은 민족 정체성 혹은 국민 정체성이 상이한 조선족, 한국사람, 북한사람, 북한화교 등 네 집단이 공존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경제학 일각에서도 단둥 소재 기업들의 대북 무역과 투자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주의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을 기준으로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 규모와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이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있어 차이만을 주목하여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상황과 현안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대북무역상을 대상으로 타집단과 상이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았다.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무역상이 대북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비록 한국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한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데 활용하면서 이동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시 조선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도 정체성 저글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정체성 저글링, 단둥, 북중무역, 조선족

Abstract : Regarding to Dandong as the gateway city of the Sino-North Korea trade, cultural anthropology characterizes it with a hybridity of four groups with a different combination of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Korean Chinese(*Chosonjok*),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nd Chinese-North Koreans. And,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463).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 (formerly,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sychung@smu.ac.kr)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Space and Environment Studies(formerly,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mhkim@smu.ac.kr)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hyungeo@khu.ac.kr)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leesc@dongguk.edu)

http://dx.doi.org/10.23841/egsk.2017.20.3.355

microeconomics views the enterprises in Dandong area have different sizes and types in the Sino-North Korea cross-border trade depending on their owner'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However, these researches focuses mainl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falling short in showing how the group members utilize their double identities to maintain and prosper their businesses, coping with various and changing situ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identity juggling' and applies it to *Chosonjok* cross-border traders. The results from the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indicate they juggles their Korean ethnic identity and Chinese national identity selectively in terms of their bilinguality of the Korean and Chinese, mobility crossing Chin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prospects on the trade revitalization thanks to potential mitigation of tensions in Korea peninsula.

Key Words : Dandong, identity juggling, Dandong, Sino-North Korea trade, Korean Chinese(*Chosonjok*)

1. 서론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극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대외 개방을 하였는데 실질 대상은 중국이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내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시장화가 진행되었다. 북중무역은 북한의 제한된 개방과 시장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으며 그 핵심 지역인 단둥이 주목받았다. 보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여왔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의 대북무역 물동량의 70~80% 이상을 담당하는 단둥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단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리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등 여러 사회과학분야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지리학적 연구는 단둥이 북중무역의 핵심지역이 되는 이유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자연환경적 특성 그리고 경제 체제와 발전수준이 상이한 두 국가가 접하는 입지적 특성을 부각하였다. 환경결정론이나 공간결정론적 관점이 투영된 이러한 단둥의 자연환경적 그리고 입지적 특수성은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단둥에 관한 연구에서도 빠짐없이 언급되었다. 경제학적 연구는 주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북중무역의 추이를 파악하고 거래 물품, 구조, 제도, 관행 등에 있어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 이분법에 기반하여 양국 간 정치적 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무역 추이와 양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문화인류학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참여관찰 등 정성적 방법론을 통해 북중무역 주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민족성 혹은 국적성이 상이한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등 네 개 집단이 5 · 24조치 이전 한국, 중국, 북한을 잇는 삼국무역 그리고 현재의 북중무역의 핵심적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경제학적 연구에도 받아져 경제 주체의 상이한 민족–국적성이 무역 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단둥은 여타 북중접경지역에 비해 독특한 자연환경적 그리고 입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북중무역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민족적, 경제 체제적 차이 등 다양한 경계가 교차하는 혼종적 특성을 갖는 독특하고 예외적인 공간으로 그려졌다.

본 연구는 단둥 지역을 통한 북중무역에 있어 무역 주체가 가진 상이한 민족–국가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 성과를 주목하고, 조선족을 사례로 자신이 가진 독특한 조합의 이중 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는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매번 일주일가량 단둥 현지에 체류하면서 이루어졌다. 조선족 대북 무역상을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수 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하였다. 이와 함께 생애사, 무역활동, 향후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단순히 민족–국민성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있어서 차이만을 주목하였던 한계를 넘어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다중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힐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단둥에 관한 여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학적 의의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이자 핵심개념인 정체성 저글링을 상술하고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단둥지역을 현지조사하고 조선족 무역상을 설문하고 인터뷰하는 등 조사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4장은 조선족 무역상의 정체성 저글링의 구체적 양태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끝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북중무역이 조선족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 갖는 함의 그리고 북중 무역의 주요 행위자인 조선족 무역상이 보인 정체성 저글링이 단둥의 관계적 지리학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맺는다.

2. 북중무역과 단둥

대북무역의 주요 통로인 중국의 단둥(丹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단둥은 대북 무역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탁월하다. 한지은(2002)은 단둥이 중국의 여느 변국경도시와 달리 무역을 위한 연변(沿邊), 연해(沿海), 연강(沿江)이라는 삼연(三沿)의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목했다. 단둥지역은 북중 국경의 약 1/4에 해당하는 306km의 북중 접경지대를 가지고 있고(연변), 둥항(東港)을 기점으로 황해를 통해 한반도 서쪽과 해상교류가 가능하며(연해), 북중 공유 수역인 압록강은 수운과 수력발전에 용이하다(연강).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 점은 북중무역도시로서의 단둥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북중 교역 인프라를 조망한 연구로 정은이(2013) 그리고 박종철 · 정은이(2014)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압록강대교(중조우의교)를 통한 트럭 운송과 평양–베이징 국제여객열차 운행, 둥항과 랑터우항을 통한 인천과 신의주/남포로의 해상 여객 및 물류, 수풍댐을 활용한 공동수력발전과 송유관인 중조우의관을 통한 에너지교류 그리고 향후 교류확대를 대비한 황금평 부지 조성,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포함한 단둥 신구 개발 등에 관한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였다.

교역 인프라를 활용한 북중 무역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주로 경제학과 국제개발학 연구는 랴오닝성 통계연감, 단둥 통계연감, 해관통계 등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김병로 외(2008)는 북한과 중국 간 정치외교적 관계와 사회연결망과 더불어 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정치적 종속성, 방어적 소극성, 지역적 편중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북한과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임가공 무역,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 밀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하여 북중 경제협력의 특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이종운 · 홍

이경, 2013).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통계자료에 기반한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과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거나(이종운, 2015), 북한의 국제 사회에서 고립과 중국의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저렴한 자원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 북중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Lee and Hong, 2015). 또한 북한과 중국 간 무역과 투자 증대를 신식민주의 혹은 남-남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양자택일하여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Lee and Gray, 2016). 현금이나 물물교환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북중변경무역에 대한 금융제재의 일환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Lee and Gray, 2017). 이와 같이 2차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거시적 시각에서 북중무역의 특성과 특히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이상의 정량적 연구는 종종 현재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통계자료가 여전히 분석의 중심이었으며 주장의 주된 근거였다. 이와 달리 사회학과 인류학을 중심으로 정성적 연구방법론으로 전환이 시도되었다. 이로써 광범위한 설문,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중경제협력의 행위 주체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대북사업을 하거나 했던 중국 기업 300여 개를 설문조사하여 Haggard, Lee, and Noland(2011)는 작금의 북중 거래를 대한 법적 안정망이 없는 '제도 공백 하의 월경적 거래'라 정의하고 거래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후속 연구로 Haggard와 Noland(2012)는 북중 무역은 북한 측의 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국기업과의 신뢰의 정도는 낮다고 주장했다. 공식적 제도의 부족으로 거래처를 탐색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때 사적으로 해결함에 따라서 현재 북중 무역의 성장이 양측 국경지역의 통합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다고 판단했다.

참여관찰을 통해 인류학자 강주원은 단둥이 북한, 중국, 한국 등 삼국 간 만남과 무역의 교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등 네 개 집단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강주원, 2012; 2013a; 2013c; 2016).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들 네 개 집단은 언어를 경제자본이자 사회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민성과 민족성의 서로 상이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네 개 집단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감추기, 넘나들기, 확인하기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강주원, 2012; 2013b; 2013c).

정은이·박종철(2014)은 북중 무역에서의 관행과 행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행위자(actor)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민간무역은 소수의 북한연고자가 보따리장사나 밀무역 형태로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중수교와 중국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한국인과 한족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이들 새로운 행위자는 북한 사정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언어 장벽으로 중국조선족과 북한화교에 의존하였다. 이들 두 행위자 집단은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협력파트너가 되면서 단순 통역에 머물지 않고 자본과 노하우를 갖춘 독자적인 무역업자로 성장하였다. 2010년 5.24조치로 한국인은 남북간 접무역에 대한 무관세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한족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들 한족 대자본은 교량, 항만, 광산 등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수천 명 규모의 북한 해외노동자(조선 공인)을 고용하기도 한다. 이로써 단둥을 통한 북중 무역의 관행과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부상, 소멸의 과정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병연 · 정승호(2015) 그리고 김병연(2016)은 북중 무역에 관여하는 176개 현지 기업을 설문하여 기업 실소유자의 국민성 · 민족성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족 기업이 매출액 혹은 투자액의 규모와 이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내 네트워크가 넓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며 군과 같은 북한의 유력한 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 북한화교 기업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는데 도소매업을 주로 하면서 대방이 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족 기업은 위탁가공무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이 대방인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문화인류학에서는 단둥이 한국인, 조선족, 북한화교, 북한인 등 네 개 집단에 의해 공유되며 발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기업주의 민족성–국민성에 따라 대북경제교류에 있어 규모나 활동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족성과 국적성의 교차 조합에 의해 형성된 단둥의 혼종성이 단둥을 예외적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자산으로 하여 북중무역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민족성–국민성 조합이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차이만을 주목하여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다중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무역상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여 다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정체성 저글링

정체성 저글링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가진 여러 정체성 중 일부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거나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심지어 자집단과 타집단 간의 공통된 정체성을 활용하여 타집단의 일원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 저글링을 행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은 소극적 측면에서 자신의 특정 정체성 때문에 겪게 되는 혹은 예견된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적극적 목적은 사회나 상황에서 선호되는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다.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이라는 개념은 국제이주자 특히 국제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이현재(2012)는 그로리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의 '문화들을 저글링하기(to juggle cultures)'[1]와 조디 딘(Jodi Dean)의 '저글링 기술(juggling skills)'[2]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이 다양한 시점과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다중 정체성을 공존, 경합, 교섭시킨다고 보았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요리 등 가사는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아이가 아프거나 약이 필요하면 남편과 이야기하며 가족관계 문제는 필리핀 친구와 상의하는 경우를 들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정현주(2015)는 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페미니즘 연구가 제시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성, 억압의 교차성, 변위와 유목적 주체 등의 개념이 이주여성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타자화된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합하고 협상하고 변형함으로써 주체로 위치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보았다.

개별 정체성이 지리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초지역적 연계와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다중 정체성을 가진 이주민은 상이한 정체성의 공존, 경합, 교섭을 통해 새로운 지역성 형성에 기여한다. 다문화공간의 지역성과 그 역동성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지리학적 접근을 한 현실 사례 연구로 박소영(2015)은 과거 식모와 마찬가지로 조선족 가사노동자는 이주 후에도 시골 출신, 저소득, 낮은 학력이라는 기원지에서의 정체성으로 평가받는 초지역적 정박(translocal anchoring)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비

록 정체성 저글링을 다루지 않았지만 상이한 정체성이 위계적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으로서 가사도우미 이주여성을 가진 가정을 분석하였다.

국경무역과 관련하여 소수민족의 정체성 저글링을 다룬 연구도 있다. Nguyen, Kim, and Ubukata (2015)는 베트남 중부지역에 라오스 국경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브루반큐 민족이 주류민족인 킨(Kinh)족이 주도하는 월경무역에서 소수민족 변경원주민으로서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운반꾼(cart-puller)으로서 활동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얻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둥 지역을 통한 북중무역이 서로 상이한 민족-국가 정체성을 지닌 한족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 북한화교, 북한인,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족 무역상을 설문 인터뷰하여 자신이 가진 다중 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 경계가 교차하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성을 규명함은 물론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초지역적 연계의 사회적 면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족은 중국 국민으로 동화되면서도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저항하던 (연변)조선족이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노동이주하면서 공동체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허명철, 2011). 이에 강진웅(2012)은 조선족이 특히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경험하면서 한국민에 의해 타자화되면서 중국 공민 의식이 강화되는 한편 귀환 이후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족과 경쟁에서 사회경제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족이 중국 공민이나 한민족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북무역상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조선족의 독자적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를 위해 2017년 2월, 4월, 7월 총 세 차례 현지답사에서 조선족 대북무역상 8명을 심층인터뷰하였다.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인적사항, 이주, 물자교류 및 임가공 알선 등 무역활동, 향후 북중무역에 대한 전망을 물었으며 조선족 무역상 2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응답한 26명의 조선족 무역상은 남성이 18명(69.2%) 여성이 8명(30.8%)이었다. 연령은 30대, 40대, 50대 무역상이 각각 7명으로 고루 분포했으며 20대 무역상도 있었다. 출생지는 지린시, 옌볜시 등 지린성 출신이 13명이었고 랴오닝성 출신이 9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은 단둥 토박이었다. 헤이룽장성 출신도 2명 있었다. 단둥으로의 이주시기를 물었을 때 북중무역이 활성화된 2000년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24조치가 있었던 2010년 이후에 이주해 온 무역상도 7명에 달했다. 이주 당시 목적은 대북무역이 16명(61.5%)으로 가장 많고 취업 7명(26.9%), 한국과의 무역 4명(15.4%) 순이었으며 자영업과 학업이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4. 북중무역에서 조선족의 정체성 저글링

본 장에서는 조선족 무역상이 대북무역을 함에 있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양태를 이중 언어 구사,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으로의 이동성,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대북무역에 대한 전망 등 세 가지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 나누어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1) 이중 언어 구사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만의 신흥부유층 가정에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 이주여성은 자신의 영어소통능력을 활용하여 단순한 고용인의 우월적 지위에 도전한다. 세계체제 주변부 출신 이주여성이 영어가 권력화되어 있는 아시아권에서 서양식민지배의 잔재인 영어를 통해 협상력을 재고한 경우이다(정현주, 2012: 128–129). 이처럼 언어구사능력은 권력이 된다.

압록강을 두고 양측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다르다면 당연히 양측 언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산이 된다.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북중무역에서 성공하려면 자본, 정보, 인맥이 필요하다. 이중 정보, 인맥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다 빨리 전달되고 보다 수월하게 형성된다. 폐쇄형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무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대방(무역 파트너)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때 동일한 문화 특히 언어는 긴요하며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선족은 한국어(조선말)과 중국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다. 조선족은 중국 한족과 견주어 한국어(조선말) 구사 능력을 갖고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실제 랴오닝성 번시 출신의 조선족 무역상은 단둥에 조선족이 늘어난 이유로 "북한쪽 말이 하니까 말도 통하고 [대북무역에] 좀 유리하잖아요, 조선족들은"[3]이라고 응답했다.

조선족이 중국에서 한국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족 학교가 있다.[4] 동북3성에 조선족 학교가 들어선 시기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점되자 토지를 수탈당한 농민과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과 독립운동가가 대거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던 당시 독립운동을 위한 간도 지역 무관학교와 더불어 민족교육을 위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임채완 외, 2013: 59)[5]. 하지만 조선족 학교 수와 학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한족으로의 동화가 강요되는 문화혁명의 여파가 있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어 갔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고등교육을 한족 학교에서 받는 경우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북3성 조선족 학교에서 사용된 한국어 교재 대부분은 조선족 집거구 중 가장 큰 규모인 옌볜에서 제작되었다 한다. 그런데 옌볜지역 조선족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한지역 출신이 많았고 해방 이후로도 왕래가 잦아 이북사투리가 강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 친지방문이나 이주노동을 하여 한국사투리에 익숙해지고 있다 한다.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변TV의 경우 아나운서나 기자가 한국에 유학한 경우가 많아 한국사투리가 널리 퍼진다고 한다.

무역상 설문조사 응답자 26명 중 16명(65%)이 직장경력이 있었는데 실소유주가 한족이나 조선족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중국어–조선어 통역이나 이를 활용한 노무관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8%에 달했다. 건축자재를 북한에 수출하는 조선족 무역상의 경우도 한족보다 사업하기에 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 "한족은 언어가 안 되니까. 내 아는 분들은 다 나를 통하게 해주고. 뭐 건재나갈 때, 타일 뭐 …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서로 돕지 뭐."[6]라 응답하면서 한국어 능력과 동족 간 연대감과 협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조선족은 중국 한족에게 없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사용에 있어서 세심함이 필요하다. 대화 상대에 따라 그에 맞는 방언을 사용한다. 북한인에게는 이북을 '조선', 한국어를 '조선말'이라 부르고 한국인에게는 '북한', '한국말'이라 한다.[7] 특히 2010년 5·24조치 이전 한국, 중국, 북한을 잇는 삼국무역이 활발하였을 때 가교역할을 했던 조선족은 상이한 언어습관에 유의했다.

북중무역에 잇점이 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은 조선족만이 아니라 북한화교도 가지고 있다. 북한화교는 한국전쟁[8]에 중공군으로 참전하였다가 휴전 후 북한에 남았거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동북3성보다 나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으로 이주한 중국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중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북한 사정에 상대적으로 밝고 북한 현지에 부모나 형제를 두고 있어 신용 거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었다.[9]

인터뷰에 응한 조선족 무역상은 북한화교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하였다. 예로, "화교들은 중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막 해요. 중간에 사기 치고 … 한국 사람들도 화교들 때문에 망하고 간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중국말 할 때는 저들이 챙긴다고 … 통역을 똑바로 안 해 주거든? 한국에서 오면 요렇게 해야 하는데, 걔는 반대로 말한다고 … 그러니 돈 딱 뜯기고 가고 … 화교들이 아주 나쁜 놈의 아이들이야."[10]라 평가했다. 조선족의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북한화교와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유대감이나 중국 공민으로서의 동질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족 무역상은 북한 무역일꾼과 북한화교에 비해 중국어 구사 능력을 그리고 중국 한족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중무역을 매개하고 있다.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통한 정체성 저글링을 통해 조선족 무역상이 얻는 이득은 단순히 거래의 성사에 머물지 않고 협상력을 제고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에게서 이윤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이득은 줄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일꾼 중에서 대부분 나이든 북한일꾼은 중국어 실력이 간신히 의사소통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젊은 무역일꾼은 중국어에 능숙하기 때문이다.[11] 특히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으로 중국어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은 무역일꾼도 있다.

2) 남북한 왕래와 이동성

이동성은 각종 지리적 경계를 가로지름으로써 영역 특수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자 나아가 타인의 이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된다. 교통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전지구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거리가 단축되어 왔다. 하지만 이동 능력은 모두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본가와 글로벌 엘리트는 스스로 이동할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반면 선진국 2차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개도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는 가까스로 이동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타인을 이동시킬 권력은 없다(정현주, 2012: 119). 예를 들면 선진국 가정에 가사·육아도우미로 일하는 개도국 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정작 본인의 자녀는 현지를 벗어나지 못한 조모에 의해 양육된다. 이 경우 이주여성은 가까스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조모는 그마저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조선족 대북 무역상은 이동성을 갖추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26명의 조선족 무역상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1명이 한국 방문의 경험이 있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친척이 있거나(응답자 수: 16명) 친구가 있다(20명). 한국에 보따리 장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17명) 그 수가 적지만 방문취업제 등을 통해 이주노동한 경력이 있다(5명).

조선족의 한국으로 이동과 이주는 1980년대 북방정책을 계기로 중국 및 CIS 지역 국가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 친척이 있는 소위 연고동포 조선족들이 홍콩을 경유하여 들어왔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직접 방문이 가능해졌다. 당시 영세 제조업체가 내국인 기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로 건설현장에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친지방문자를 통해 동북3성 조선족 사회에 알려졌고 구직 그리고 임금과 환율 차이를 통해 경

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취업이주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조선족 여성의 결혼이주도 크게 증가하였다(이현욱 외, 2014).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집단농장이 가족농으로 전환되고 국영기업이 재편되면서 잉여 농민과 실업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정부 주도로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해 잉여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송출국과 수용국의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공헌을 기대하면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로 나간 한인만을 재외동포로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과 CIS 지역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2004년에 개정된다. 이로써 조선족은 출입국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07년에는 한국에 친척연고가 없는 조선족에게도 동포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동포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방문취업제가 실시되었다(박우, 2017).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의 이동성은 중국 국민성 보다는 한민족으로서 민족성에 의존한다. 이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여타 개도국 출신 외국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의 한민족이라는 민족성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은 한국인이 가지지 못한 북한으로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설문 응답자 26명 중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조선족 무역상은 19명이었으며 북한 국적 친척(응답자 수: 10명)이 있거나 친구가(17명) 있었다. 북한을 최초 방문 시 목적을 물었을 때는 관광이나 친지방문보다 거래처 탐색이나 당 혹은 군부와의 인맥 형성 등 사업 목적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조선족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북한을 자유자재로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 거래처(대방)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12] 북한 비자의 특이한 점은 북한 내 여행가능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기되지 않은 지역을 여행하려면 별도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표기된 여행지역 내에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긴 하지만 초청한 북한 거래처 직원과 같이 다녀야 한다.[13] 북한 왕래와 이동에 있어서 북한화교는 조선족에 비해 강점이 있다. 인터뷰에서도 "화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막 갔다왔다하지요"[14]라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북한화교는 북한 국적이기 때문이다.

설문에서 최근 한 해 동안 방문 횟수를 물었을 때 1회(5명), 2회(4명), 3회(5명)가 많았으며 4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4명이나 되었다. 방문 목적은 주로 거래처 방문이나 대금결제를 위해서였다. 거래처 방문은 물자 무역에서는 물품 확인 혹은 임가공인 경우 품질 관리가 실질적 목적이다. 이는 직접 방문이 아니라 이동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전에는 다가고 팩스로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채팅 있잖아요? 그걸로 품질보고 위챗(WeChat)으로 사진 보내면 어떻게 처리해라 … 이러구 합니다"[15] 외국인은 로밍이 되지 않아 자신이 쓰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외국인 전용 국제 유심(U-SIM)카드를 구매하여 해외통화한다. 북한 주민에게는 국제 유심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 거래처와 연락을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한다고 한다.

조선족 무역상은 한국과 북한을 왕래함에 있어 민족성 – 한국에 의해 정의된 것이지만 -과 국적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인의 이동을 결정할 권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부연해지역의 경공업은 1980년대 시행된 독생자녀제의 여파로 인한 20~30대 젊은 연령대 감소와 내륙지역 성장으로 인한 신세대 농민공의 귀향 및 의식변화, 장시간 반복 노

동에 대한 기피 등으로 인력난과 임금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생산시설을 고원지대, 서부 내륙지역, 혹은 해외로 이전하는 재입지 전략을 펴고 있으며(Zhu and Pickles, 2014), 이중 일부가 단둥을 포함한 북중접경지대로 이전해 오고 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중국인의 60% 수준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직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통제가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북한인은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수예, 복장 등 한 가지 기능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노동의 질도 뛰어나다.

공식 통계를 얻을 수 없었으나 단둥에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조선 공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조선족 무역상은 인터뷰에서 연구진이 단둥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수가 3만 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그거보다 더 돼요. 내가 소개해준 것만 해도 거의 … 4,000명 되는데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지금 훈춘에는 한 7,000명 돼요"[16]라고 덧붙였다. 인력 송출입 브로커가 자본가나 글로벌 엘리트와 동등한 이동에 관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조선족 무역상은 북한 인력을 중국 기업에 소개함으로써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3) 향후 대북무역에 대한 전망

앞서 살펴본 이중 언어 구사와 남북한 이동은 조선족 무역상이 정체성 저글링을 통해 사업 운영 방식이자 북중무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못지않게 향후 대북무역에 대한 전망에서도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이 향후 대북무역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최근 핵 실험과 장거리탄두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규탄과 비난을 사고 있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 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녕을 위해 북한의 핵 무장을 저지하고자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설문조사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의 영향에 관해서 물었다. 거래량의 감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6명 중 18명(69.2%)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품목을 바꾸거나(13명), 결제 방식을 변경(12명)하였다. 하지만 거래처(대방)를 바꾸거나(8명) 업종을 전환하려 한다(3명)는 응답은 적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조선족 무역상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아직 무역 관행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교역물자의 원산지를 감추기도 한다. 홍삼, 털게 등 북한산 농수산물은 중국에 판매하려 한다면 오염되지 않은 천연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산이라 밝힌다. 하지만 한국시장을 노린다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하거나 북한에서 임가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춘다.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수입이 금지되면서 생긴 변화이다.[17] 천 장 이하로 물량이 적은 패션의류일 경우 동남아시아에 비해 물류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황해 연안 중국에서 여전히 생산된다.[18] 이중 일부가 북한에서 임가공되는데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산으로 표기해도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북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아예 생산이 되지 않는 약재가 있으므로 한국 세관에서 북한산임을 알아차린다.[19] 이처럼 미미한 량이지만 조선족 무역상 자신이 취급하는 물자의 원산지 저글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조선족 무역상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일례로,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 무역상은 "제재를 한다고 형편없이 되는 것은 특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뭐가 있겠지만. … 예를 들어, 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생필품으로 가장 중요한데 …"라 하였다[20]. 또 다른 무역상도 제재 강화 초기이기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뭐 제재를 해도 평양에 가보면요 끄떡 없어요. 서민들은 몰라서 그러는지 영향이 없어요."라 평가했다.[21] 평양지역에 국한된 개인적 판단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선족 무역상은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인한 한국과 북한 간 무역이 재개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를 준비하기도 한다.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 노동자의 경우 조부모가 자녀를 중국에서 양육하는 반면 조선족 무역상은 역으로 본인이 중국에 머물면서 자녀를 한국에 유학시키기도 한다. 양자 모두 초국가적 가족을 형성한 경우로 특히 조선족 무역상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중조변민호시무역구 내에 북한 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조선족은 5·24조치 이전 북한 상품이 단둥의 보세창고를 거쳐 무관세로 한국으로 수출되던 무역로가 다시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금강산 관광지와 개성공단에 맥주와 기념품을 공급했던 평양 소재 회사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족 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며 개혁개방은 조선족 기업가에 작지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단둥이 아닌 베이징에 기반을 둔 한 조선족 사업가는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은 조선족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중국에 투자하고 합작을 이룬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를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인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겠으나 장기간 이념적인 대립갈등 상황에 있었고 반면 조선족은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양자를 모두 경험하였기에 북한에서 가지는 거부감이 적다고 주장했다[22]. 즉 중국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족인 화교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북한이 개혁개방할 때 한국인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자를 모두 경험한 조선족이 장점을 가진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전환을 상정하고 민족 유대감과 중국 국민성 양자를 갖춘 조선족이 정체성 저글링을 통해 우위를 가질 수 있다.

5. 종합토론 및 결론

북한의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적 시장 거래의 활성화와 그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해 북중무역의 최대 거점인 단둥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단순히 단둥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그에 바탕을 둔 교류 인프라을 정리하는 연구는 점차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 이전과 이후 무역의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참여관찰 등 정성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북중무역의 주체와 그들의 구체적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축적 과정에서 단둥은 조선족, 북한화교, 한국인, 북한인 등 민족 정체성 혹은 국민 정체성이 다른 네 개 집단이 월경적 활동을 하는 혼종성으로 정의되고 대북 무역 기업의 실소유주의 정체성에 따라 사업 규모나 형태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심층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여 이들이 대북무역을 함에 있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공

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상황과 현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 분석결과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중 언어 구사,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으로의 이동성, 향후 대북무역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일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권력 수단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중국어 등 구사 능력을 갖춘 조선족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북중무역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는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그리고 북한으로의 이동에 있어서는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활용함으로써 대북 무역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단순히 본인이 이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이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까지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규모가 작고 제한적 범위이지만 물품의 원산지를 감추거나 바꾸기도 하였다. 끝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5·24조치 이전의 한국-중국-북한 간 삼국무역이 재활성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을 걷게 된다면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이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양자를 모두 경험한 바탕으로 즉 중국 공민으로 획득한 국민 정체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전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조선족의 조국이 중국이라는 조국관, 중국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민족관, 조선족이 이룬 역사도 중국역사의 일부라는 역사관 등 이른바 '3관(觀)'이 강요된다고 한다(정수일, 2010; 87쪽).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 조선족은 이주노동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민에 의해 타자화되면서 중국 공민의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강진웅, 2012). 본 연구는 조선족이 북중무역에서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선족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과 분리되면서도 중국 주체민족인 한족과도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관계적 지리학 연구에도 함의를 가진다. 1990년대 이후 전례없던 글로벌화 과정에서 인문지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행위자들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박경환, 2014). 관계적 지리학적 관점에서 단둥은 삼연(三沿)이라는 자연환경적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져 북중무역의 중국 측 무대가 되는 여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장소라기보다는 조선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 시·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실천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실천적 과정의 구체적 양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북중무역의 핵심 통로인 단둥이 단순히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을 달리 하는 네 개 집단이 상호 협력 경쟁하는 무역도시가 아니라 행위자가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을 통해 공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실천의 장소라는 것이다.

주

1)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francisco: Spinsters/Aunt Lute, 1987, p.79.

2) Jodi Dean,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36.

3) 이ㅁㅁ, 조선족, 무역상, 2017년 2월 22일 인터뷰.

4) 조선족 무역상 중에는 한족 학교를 다녀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롭지 않은 응답자도 있었다. 대북무역에 따른 필요로 배우기도 하는데 성장기 때 가정에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

었기에 학습 속도가 빨랐다 한다.

5) 조선족 디아스포라 과정과 개혁·개방 이후 글로벌 이주에 관한 연구로 최재헌·김숙진(2016)이 있다.

6) 라□□, 조선족, 건재 및 수산물 무역상, 2017년 2월 23일 인터뷰.

7) 한국기업에 고용되어 현지법인 직원으로 있는 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인인 연구자와 면담에서 북한을 North Korea의 약어인 'NK'라 하고 '시너지효과', '수직계열화', '인더스트리 체인', '심플한 생각', '건설코스트', '투자 가이드 인덱스' 등과 같은 산업 관련 외래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홍○○ 지사장, 2017년2월24일 인터뷰).

8) 중국에서 '항미원조전쟁'이라 불린다.

9) 이○○, 길림성 통화 출신, 2017년 7월 28일 인터뷰.

10) 라□□, 건재 및 수산물 무역상, 2017년 2월 23일 인터뷰.

11) 이◇◇, 약재 무역상, 2017년 7월 28일 인터뷰.

12) 북한에 공장을 투자설비할 정도로 대규모 한족 기업의 경우 품질 관리와 기술 지도를 위해 기술원을 파견하여 주재하도록 한다. 북한 정부에서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왕복권을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왕복권을 끊어준다"고 한다(이◎◎, 수예임가공, 2017년 2월 23일 인터뷰).

13) 이□□, 무역상, 2017년 2월 22일 인터뷰.

14) 이◎◎, 수예임가공, 2017년 2월 23일 인터뷰.

15) 이□□, 무역상, 2017년 2월 22일 인터뷰.

16) 라□□, 건자재, 수산물 무역상, 2017년2월23일 인터뷰.

17) 조선족 무역상 설문에서 5·24조치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3.1%, 거래 품목이 변화했다는 응답은 61.5%, 거래처가 변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18) 김◇◇, 의류제조업체 사장, 2017년 2월 21일 인터뷰.

19) 이○○, 2017년 7월 28일 인터뷰.

20) 김□□, 중조변민호시무역구 무역상, 2017년 2월 21일 인터뷰.

21) 이□□, 무역상, 2017년 2월 22일 인터뷰.

22) 이◇◇, 2017월 2월22일 인터뷰.

참고문헌

강주원, 2012, 중·조 국경 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강주원, 2013a, "삼국(북한, 중국, 한국)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중국 단동: 중·조와 남·북 무역의 교차점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분석," 현대중국연구 14(2), pp.282-318.

강주원, 2013b, "한국어를 공유하는 네 집단의 국민·민족 정체성의 지형: 중·조 국경 도시 단동의 북한사람, 북한화교, 조선족, 한국사람," 통일문제연구 59, pp.397-443.

강주원, 2013c,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 국경도시 단둥을 읽는 문화인류학 가이드, 아케이드 프로젝트 003. 글항아리.

강주원, 2016, 압록강은 다르게 흐른다, 눌민.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pp.96-136.

김병로·신상진·장경섭·정은미·조은희, 2008,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김병연, 2016,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조사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3월호, pp.3-15.

김병연·정승호, 2015,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2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소영, 2015, "외국인 담론 극복하기: 식모와 조선족 입주 가사노동자의 계급적 위치성과 이중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2), pp.185-201.

박우, 2017, "'초국적 상경'과 서울의 조선족," 서우석 외 엮음, 서울사회학: 서울의 공간, 일상 그리고 사람들, 13장, pp.329-346.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57-78.

박종철·정은이, 2014a, "국경도시 단동과 북한 사이의 교류와 인프라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72, pp.131-152.

박종철·정은이, 2014b, "국경도시 단동의 건설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 pp.5-32.

이종운, 2015, "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7(4), pp.261−300.

이종운·홍이경, 2013,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욱·이영민·신지연·이화용, 2014, "초국가적 이주와 기원지 로컬리티 변화에 대한 연구: 중국 왕칭쎈(汪清縣) 펑린춘(風林村)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pp.29−42.

이현재, 2012,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 pp.7−36.

임채완·선봉규·박경환·전형권·이장섭·허성태 저, 2013,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로트와 기억, 전남대학교 세계한인문화연구 5차 총서 01. 북코리아.

정수일, 2010,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창비.

정은이, 2013, "접경지역 단동에 대한 현지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

정은이·박종철, 2014,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6(2), pp.293−341.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1), pp.105−144.

정현주, 2015,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지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50(3), pp.289−303.

최재헌·김숙진, 2016,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지리적 해석: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이주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pp.167−184.

한지은, 2002, "중국 단동시(丹東市)의 기능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46, pp.20−45.

허명철, 2011, "조선족공동체와 정체의식," 통일인문학논총 52, pp.307−328.

Haggard, S. and Noland, M., 2012, "Network, Trust and Trade: The Micro-economics of China-North Korea Integration," *Peterson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WP* 12-8.

Haggard, S., Lee, J. and Noland, M., 2011, "Integration in the Absence of Institutions: China-North Korea Cross-Border Exchange," *Peterson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WP* 11-13.

Lee, Jong-Woon and Gray, Kevin, 2016, "Neo-Colonialism in South-South Relations?: The Case of Chin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and Change* 47(2), pp. 293-316.

Lee, Jong-Woon and Gray, Kevin, 2017, "Cause for Optimism? Financial Sanctions and the Rise of the Sino-North Korean Border Econom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4(3), pp.424-453.

Lee, Jong-Woon and Hong, Yi Kyung, 2015,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Realities and Problems," *Pacific Focus* 2, pp.173-199.

Nguyen, Trinh Minh Anh, Kim, Doo-Chul and Ubukata, Fumikazu, 2015, "Livelihood Strategies of Ethnic Minority in the Borderlands : Case Study of the Bru-Van Kieu in Northern Central Vietna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3), pp.296-318.

Zhu, Shengjun and Pickles, John, 2014, "Bring In, Go Up, Go West, Go Out: Upgrading, Regionalisation and Delocalisation in China's Appare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4(1), pp.36-63.

교신: 이승철,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2−2260−3402. 팩스: 02−2285−3409, 이메일: leesc@dongguk.edu

Correspondence: Sung-Cheol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30, Phildong-ro 1-gil, Jung-gu, Seoul, Korea, Tel: 82-2-2260-3402, Fax: 82-2-2285-3409, E-mail: leesc@dongguk.edu

최초투고일 2017년 8월 25일
수 정 일 2017년 9월 14일
최종접수일 2017년 9월 22일